산쿠니아톤에게 귀속된 『페니키아사』:

현존 인용문과 관련 단편 전문 번역

번역 범위와 읽는 법

산쿠니아톤의 페니키아어 원저는 전하지 않는다. 아래 번역의 중심은 비블로스의 필론이 그 원저를 그리스어로 옮겼다고 주장한 저술을 에우세비오스가 『복음의 준비』에 인용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은 독립된 고대 원저의 완역이 아니라, 현존하는 인용문을 모아 옮긴 번역이다. 산쿠니아톤이라는 인물의 실체·연대, 필론이 실제로 옛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옮겼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에우세비오스의 인용을 중심으로 남은 본문과 필론의 서문을 모두 옮겼으며, 문맥을 알려 주는 에우세비오스의 연결 문장도 표시하여 포함했다. 『유대인에 관하여』, 문자와 뱀 숭배에 관한 별도 출전의 인용, 후대의 짧은 전언은 뒤에 따로 수록했다. 필론이 지은 다른 책들의 단편까지 모두 『페니키아사』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번역의 기본 대본은 E. H. 기퍼드의 1903년 공개 영문 번역이다. 확인 가능한 그리스어 인용문을 대조하여 일부 고유명사와 문장을 조정했다. 그리스어 비평판 전체를 새로 교감한 직역본은 아니다. 『월력에 관하여』의 크로노스 관련 전언은 공개 영문 번역을 참고했고, 니시비스와 이아오 관련 짧은 단편은 인용된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옮겼다.

소제목과 절 구분은 독서 편의를 위해 붙였다. [에우세비오스]는 인용을 전달하는 저자의 말이고, [인용 중단]은 현존 출전이 이미 중간을 생략했다는 뜻이다. 독자에게 제공하는 이 번역에서 임의로 내용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 대괄호는 설명이나 보충이며, 계보의 중복·모순을 임의로 고치지 않았다. 신들의 그리스식 명칭은 전달된 본문대로 유지했다.

1. 최초의 신들과 숭배

에우세비오스, 『복음의 준비』 1.9.5. 뒤의 긴 발췌문과 일부 겹치지만, 애도에 관한 문장 등 차이가 있어 따로 수록한다.

[에우세비오스] 페니키아인들의 신학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최초의 자연철학자들은 태양과 달, 그리고 그 밖의 행성들, 원소들과 이에 결부된 것들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못했다.

가장 이른 시대의 사람들은 대지의 산물을 이들에게 봉헌하였다. 그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자신들과 후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선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서 숭배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는 제물과 헌주를 올렸다.

그러나 대지의 산물이 시들어 사라지는 일, 생물들이 처음 대지에서 생겨나고 뒤에는 서로에게서 태어나는 일, 그리고 생을 떠나 맞이하는 죽음에는 연민과 탄식과 눈물을 바쳤다.

이것이 그들의 숭배에 관한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약함과, 아직 대담하게 사고하지 못하던 정신 상태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2. 산쿠니아톤이라는 저자에 관한 고대의 증언

『복음의 준비』 1.9.20~22. 이 절은 『페니키아사』 본문이 아니라 저자에 관한 전언이다.

[에우세비오스] 이러한 일을 기록한 사람은 산쿠니아톤이다. 그는 매우 오래된 시대의 저자이며,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트로이아 전쟁 시대보다도 앞선 인물이다. 그의 『페니키아사』는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전한다. 유대인 필론이 아니라 비블로스의 필론이 그의 저술 전체를 페니키아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저술을 편찬한 사람도 『그리스도교도 반박』 제4권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산쿠니아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글자 그대로 증언한다.

[포르피리오스]

유대인들의 일을 가장 진실하게 기록한 사람은 베리토스의 산쿠니아톤이다. 그의 기록이 그들의 지명과 인명에 가장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우오 신의 사제 히에롬발로스에게서 기록을 받았고, 자신의 역사를 베리토스 왕 아비발로스에게 헌정하였다. 그 왕과 당대에 진실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그 저술을 인정하였다.

이 사람들의 시대는 트로이아 전쟁보다 앞서며, 모세의 시대와도 거의 가깝다. 이는 페니키아 왕들의 계승 순서가 보여 준다.

산쿠니아톤은 여러 도시의 기록과 신전의 명부에서 옛 역사를 빠짐없이 모아,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페니키아어로 기록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여왕 세미라미스의 치세에 살았는데, 세미라미스는 트로이아 전쟁 이전이나 바로 그 무렵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쿠니아톤의 저술은 비블로스의 필론이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다.

[에우세비오스] 앞서 말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여, 이른바 신학자라는 그 사람의 진실성과 오래된 연대를 함께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신으로 다루는 것은 만물 위에 계신 신도, 하늘의 신들도 아니다. 그것은 죽을 운명의 남녀들이다. 그들은 성품이 훌륭하여 덕행 때문에 칭송하거나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며, 온갖 비열함과 악행의 수치에 뒤덮인 자들이다.

그는 또한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도 도시와 시골에서 모두에게 신으로 여겨지는 자들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면 그의 저술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

3. 필론의 서문: 자료 수집과 신화 해석

『복음의 준비』 1.9.23~30.

[에우세비오스] 필론은 산쿠니아톤의 저술 전체를 아홉 권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첫째 권의 서문에서 산쿠니아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론]

사정이 이러하였으므로, 박식하고 탐구심이 강한 산쿠니아톤은 만물이 이루어진 처음부터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서 알아내고자 하였다. 그는 태양 아래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타아우토스가 처음 문자를 고안하고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기록을 매우 세심하게 찾아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시작함으로써 자기 서술의 기초를 놓았다. 이 사람을 이집트인들은 토위트라, 알렉산드리아인들은 토트라 불렀으며, 그리스인들은 헤르메스라고 옮겼다.

[에우세비오스] 이렇게 말한 뒤, 그는 후대의 저자들이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억지로, 그리고 사실에 맞지 않게 우의와 자연 현상에 관한 설명·이론으로 돌려 버렸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그는 말한다.

[필론]

후대의 종교 저술가들은 처음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버리고, 우의와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그 이야기와 우주의 현상 사이에 가공의 관계를 설정하고 밀의를 세웠으며, 그 위에 허황된 안개를 짙게 덮어 씌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산쿠니아톤은 신전의 내실에서 발견된 암무네인들의 비밀 문서 모음, 곧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하던 기록들을 접하게 되자, 그 전부를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처음의 신화와 우의들을 걷어 내고, 자신이 뜻한 저술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훗날의 사제들은 이것을 다시 감추고 신화의 형태로 되돌려 놓으려 하였다. 그때부터 신비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으며, 당시에는 그것이 아직 그리스인들에게까지 이르지 않았다.

[에우세비오스] 이어서 그는 말한다.

[필론]

우리는 페니키아인들의 역사를 알고자 열심히 애쓰고, 많은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조사한 것은 그리스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자료가 아니다. 그들의 자료는 서로 모순되며, 어떤 저자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편찬하였기 때문이다.

[인용 중단]

그리스인들 사이의 불일치를 보고, 나는 사실이 그가 기록한 대로였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이 불일치에 관하여 『기이한 역사』라는 제목의 책 세 권을 공들여 지었다.

[인용 중단]

뒤의 설명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사항을 판별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

가장 오래된 비그리스인들, 특히 페니키아인들과 이집트인들은 — 다른 사람들은 이들에게서 전승을 받았다 —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민족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신들로 여겼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은인이자 많은 좋은 것의 창시자로 생각하여 신처럼 숭배하였다. 그들이 죽은 뒤에는 신전을 짓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둥과 지팡이를 봉헌하였다. 페니키아인들은 이것들을 매우 공경하였으며, 그들에게 가장 큰 축제를 배정하였다.

특히 자기 왕들의 이름을 우주의 원소들과 신으로 여기는 어떤 존재들에게 붙였다. 하지만 그들이 자연의 신으로 알았던 것은 태양과 달, 그 밖의 떠도는 별들, 그리고 원소들과 그것에 결부된 것들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죽을 운명의 신들도 있고 불멸의 신들도 있었다.

[에우세비오스] 필론은 서문에서 이 점들을 설명한 다음, 산쿠니아톤을 번역하기 시작하며 페니키아인들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우주와 생물의 발생

『복음의 준비』 1.10.1~6.

그는 만물의 처음이 어둡고 바람이 섞인 공기, 아니 더 정확히는 어두운 공기의 숨결과, 에레보스처럼 캄캄하고 탁한 혼돈이었다고 가정한다. 이것들은 무한하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끝이 없었다.

그는 말한다.

바람이 자기 자신의 근원들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섞임이 일어나자, 그 결합은 '갈망'이라 불렸다. 이것이 만물 창조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바람 자체는 자기 자신의 창조를 알지 못하였다.

바람이 결합하면서 모트가 생겨났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진흙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물기 있는 혼합물이 썩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에서 창조의 모든 씨앗과 만물의 발생이 나왔다.

감각이 없는 어떤 생물들이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지성을 지닌 생물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조파세민, 곧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불렸다. 그것들은 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모트가 빛을 발하였고, 태양과 달, 별들과 큰 별자리들이 나타났다.

[에우세비오스] 이것이 그들의 우주 생성론이니, 노골적으로 무신론을 들여오는 것이다. 그러면 생물의 발생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계속 살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기가 밝아지자 바다와 대지가 달아올랐고, 그로부터 바람과 구름이 생겼으며, 하늘의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흘러넘쳤다.

태양의 열 때문에 이것들이 분리되어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공기 속에서 모두 서로 만나 충돌하자 천둥과 번개가 생겼다. 천둥이 울리는 소리에 앞서 말한 지성 있는 생물들이 깨어났고, 그 소리에 놀라 암컷과 수컷이 땅과 바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에우세비오스] 이것이 그들의 생물 발생론이다. 이어서 같은 저자는 덧붙인다.

이러한 내용은 타아우토스의 우주 생성론과 그의 기록들에 쓰여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것은 추론과 증거에서 나왔으며, 그의 지성이 그것들을 알아보고 발견하여 우리에게 밝혀 주었다.

[에우세비오스] 이어서 그는 노토스와 보레아스, 그리고 다른 바람들의 이름을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지의 산물을 봉헌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겨 숭배하였다. 그것들이 자신들과 뒤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들에 헌주와 제물을 바쳤다.

편집상 주: 제1절의 애도에 관한 문장은 일부 그리스어 편집본에서 이 대목에 보충된다. 그 문장 전체는 제1절에 번역하였다.

5. 최초의 사람들과 태양 숭배

『복음의 준비』 1.10.7~9.

[에우세비오스] 그는 또 덧붙인다.

그들의 숭배에 관한 이러한 생각은 그들 자신의 나약함과 정신의 소심함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바람 콜피아스와 그의 아내 바아우에게서 아이온과 프로토고노스가 태어났다고 한다. 바아우라는 이름은 '밤'이라고 풀이한다. 아이온과 프로토고노스는 그렇게 이름 붙은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었다. 아이온은 나무에서 얻는 먹을거리를 발견하였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게노스와 게네아라 불렸고, 페니키아에 살았다. 가뭄이 들면 그들은 하늘의 태양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들이 오직 태양만을 하늘의 주인이신 신으로 여기고 베엘사멘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은 페니키아어로 '하늘의 주인'이며, 그리스인들에게는 제우스이다.

[에우세비오스] 그 뒤에 그는 그리스인들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말한다.

우리가 이 일들을 여러 방식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뒤에 이 이야기 속 이름들이 잘못 이해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무지 때문에 그 이름들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고, 번역의 모호함에 속아 길을 잘못 들었다.

6. 불과 의복, 배와 건축, 농업과 문자의 기원

『복음의 준비』 1.10.9~15.

아이온과 프로토고노스에게서 나온 게노스에게 다시 죽을 운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들의 이름은 '빛', '불', '불꽃'이었다. 이들은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을 얻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들에게서 몸집과 키가 대단히 큰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들이 차지한 산들에는 그들의 이름이 붙었다. 카시오스산과 리바노스산, 안틸리바노스산과 브라튀산이 그들에게서 이름을 얻었다.

그들에게서 사멤루모스, 곧 힙수라니오스와 우소스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들은 어머니 쪽을 따라 불렸다. 당시의 여자들이 만나는 남자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힙수라니오스는 티레에 살며 갈대와 골풀과 파피루스로 움막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는 형제 우소스와 다투었다. 우소스는 자신이 잡을 수 있었던 야생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는 것을 처음 고안한 사람이었다.

맹렬한 비바람이 몰아치자 티레의 나무들이 서로 마찰하여 불이 붙었고, 그곳의 숲이 타 버렸다. 우소스는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가지를 잘라 내고, 처음으로 그 위에 올라 바다로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하였다.

그는 불과 바람을 위하여 기둥 두 개를 봉헌하고 그것들을 숭배하였으며, 사냥하여 잡은 짐승들의 피를 그 위에 부어 바쳤다.

힙수라니오스와 우소스가 죽자 남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팡이를 봉헌하였고, 해마다 그들의 기둥을 숭배하며 그들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오랜 세월 뒤, 힙수라니오스의 후손 가운데 아그레우스와 할리에우스가 태어났다. 이들은 사냥과 고기잡이를 고안하였고, 사냥꾼과 어부라는 이름이 그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에게서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이들은 철과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그 가운데 크리소르는 웅변과 주문과 점술에 능하였다. 그는 헤파이스토스였으며, 낚싯바늘과 미끼와 낚싯줄, 뗏목을 고안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항해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가 죽은 뒤 그 역시 신으로 공경하였다.

그는 제우스 메일리키오스라고도 불렸다. 어떤 이들은 그의 형제들이 벽돌로 벽을 쌓는 방법을 고안하였다고 한다.

뒤에 그들의 후손 가운데 두 젊은이가 나타났다. 하나는 테크니테스, 곧 '장인'이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게이노스 아우토크톤, 곧 '대지에서 태어난 토착인'이라 불렸다. 이들은 벽돌을 만들 진흙에 짚을 섞어 햇볕에 말리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지붕도 발명하였다.

그들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태어났다. 하나는 아그로스, 다른 하나는 아그루에로스 또는 아그로테스라 불렸다. 후자의 형상은 페니키아에서 매우 큰 공경을 받았으며, 그의 성소는 멍에를 멘 소들이 끌었다. 비블로스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불렀다.

이 두 사람은 집에 마당과 울타리와 동굴을 덧붙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들에게서 농부와 사냥꾼이 나왔다. 이들은 알레타이와 티탄들이라고도 불렸다.

그들에게서 아미노스와 마고스가 태어났으며, 이들이 마을과 양 우리를 세웠다. 그들에게서 미소르와 쉬뒤크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각각 '곧은 자'와 '의로운 자'를 뜻한다. 이들은 소금의 사용법을 발견하였다.

미소르에게서 타아우토스가 태어났고, 그가 처음으로 문자를 고안하였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토위트라, 알렉산드리아인들은 토트라, 그리스인들은 헤르메스라 불렀다.

쉬뒤크에게서는 디오스쿠로이, 또는 카베이로이, 코리반테스, 사모트라케인들이 나왔다. 이들이 처음 배를 발명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약초와 독에 물린 상처의 치료법, 그리고 주문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왔다.

번역 주: 사멤루모스와 힙수라니오스의 관계는 전승 문구에 문제가 있다. 이 문장에는 두 이름을 동일 인물로 읽고 우소스를

보충하는 그리스어 교정 독법을 반영했다. 기퍼드의 옛 번역은 멤루모스와 힙수라니오스를 별개 인물처럼 옮긴다. 또한 우소스·크리소르·카베이로이에게 배나 항해의 발명을 각각 돌리는 중복은 전승 그대로이다.

7. 하늘과 땅, 크로노스의 등장

『복음의 준비』 1.10.15~21.

그들의 시대에 엘리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는 '가장 높은 자'라고 불렸다. 베루트라는 여자도 있었으며, 이들은 비블로스 부근에 살았다.

그들에게서 에피게이오스 또는 아우토크톤이 태어났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우라노스라 불렀다. 그의 아름다움이 뛰어났으므로, 우리 위에 있는 영역에도 그의 이름을 붙여 우라노스, 곧 '하늘'이라 하였다.

앞서 말한 부모에게서 그의 누이도 태어났는데, 게, 곧 '땅'이라 불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대지에도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들의 아버지 '가장 높은 자'는 야생 짐승들과 맞닥뜨려 죽었다. 그는 신으로 받들어졌으며, 자식들은 그에게 헌주와 제물을 바쳤다.

우라노스는 아버지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뒤 누이 게와 혼인하여 아들 넷을 얻었다. 엘로스 — 곧 크로노스 — 와 바이틸로스, 시톤이라고도 하는 다곤, 그리고 아틀라스였다.

우라노스는 다른 아내들에게서도 많은 자식을 낳았다. 이 때문에 게는 화를 내었고, 질투하여 우라노스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둘은 헤어졌다.

그러나 우라노스는 떠난 뒤에도 자기가 원할 때면 게를 폭력으로 덮쳐 관계를 맺고 다시 떠나곤 하였다. 그는 게에게서 낳은 자기 자식들을 죽이려 하기도 하였으나, 게는 동맹자들을 모아 여러 차례 그를 물리쳤다.

크로노스가 성인이 되자, 그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아버지 우라노스를 물리치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다. 헤르메스는 그의 서기였다.

크로노스에게 페르세포네와 아테나라는 자녀가 태어났다. 앞의 딸은 처녀인 채로 죽었다.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조언에 따라 크로노스는 철로 낫과 창을 만들었다.

그다음 헤르메스는 크로노스의 동맹자들에게 마법의 말을 하여, 게를 위해 우라노스와 싸우려는 열망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크로노스는 전쟁을 벌여 우라노스를 통치권에서 몰아내고 왕위를 이어받았다.

전투 중에 우라노스가 사랑하던 첩도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크로노스는 그녀를 다곤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우라노스의 아이를 낳아 데마루스라고 이름 지었다.

그 뒤 크로노스는 자기 거처 둘레에 성벽을 두르고, 최초의 도시인 페니키아의 비블로스를 세웠다.

얼마 뒤 그는 자기 형제 아틀라스를 의심하게 되었다. 헤르메스의 조언에 따라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고 흙으로 묻어 버렸다.

이 무렵 디오스쿠로이의 후손들은 뗏목과 배를 만들어 항해하였으며, 카시오스산 부근 해안으로 밀려가 그곳에 신전을 봉헌하였다.

엘로스, 곧 크로노스의 동맹자들은 엘로임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는 크로노스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면 크로니오이라고 할 것과 같다.

크로노스에게 사디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을 의심하여 자기 손으로 칼을 써 죽였다. 이렇게 그는 제 자식의 목

숨을 빼앗은 살해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 딸 하나의 머리도 베었다. 그리하여 모든 신이 크로노스의 성품에 경악하였다.

8. 신들의 혼인과 계보, 우라노스의 최후

『복음의 준비』 1.10.22~30.

세월이 흐른 뒤, 망명 중이던 우라노스는 처녀인 딸 아스타르테를 두 누이 레아와 디오네와 함께 몰래 보내, 계략으로 크로노스를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그들을 붙잡아, 자기 누이들이었음에도 정식 아내로 삼았다.

우라노스는 이 사실을 알고 헤이마르메네와 호라를 다른 동맹자들과 함께 보내 크로노스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이들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곁에 두었다.

또한 우라노스 신은 돌에 생명을 넣는 장치를 고안하여 바이틸리아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크로노스는 아스타르테에게서 딸 일곱을 얻었는데, 이들은 티타니데스 또는 아르테미데스라 불렸다. 그는 레아에게서도 아들 일곱을 얻었으며, 그 가운데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신으로 봉헌되었다. 디오네에게서도 딸들이 태어났고, 아스타르테에게서는 다시 두 아들 포토스, 곧 '갈망'과 에로스, 곧 '사랑'이 태어났다.

다곤은 곡물과 쟁기를 발견한 뒤 제우스 아로트리오스, 곧 '쟁기질하는 제우스'라 불렸다.

티타니데스 가운데 하나가 '의로운 자'라 불리는 쉬뒤크와 결합하여 아스클레피오스를 낳았다.

페라이아에서도 크로노스에게 아들 셋이 태어났다.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크로노스, 제우스 벨로스, 그리고 아폴론이었다. 이들의 시대에 폰토스와 튀폰, 그리고 벨로스의 아들이자 폰토스의 아버지인 네레우스가 태어났다.

폰토스에게서 시돈과 포세이돈이 태어났다. 시돈은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워 처음으로 노래를 고안하였다. 데마루스에게서는 헤라클레스라고도 하는 멜카트로스가 태어났다.

그 뒤 우라노스는 다시 폰토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는 이탈하여 데마루스와 손을 잡았고, 데마루스는 폰토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폰토스가 그를 패주시켰다. 데마루스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다면 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다.

엘로스, 곧 크로노스는 권력을 잡고 왕이 된 지 서른두 해째에 내륙의 어느 곳에 매복하여 아버지 우라노스를 붙잡았다. 그는 샘과 강들이 있는 곳 가까이에서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 냈다.

그곳에서 우라노스는 신으로 봉헌되었으며, 그의 숨은 끊어졌다. 잘린 생식기에서 흐른 피는 샘과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 장소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인다.

[에우세비오스]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리스인들이 그토록 떠들썩하게 찬양하는 크로노스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자랑한다는 영광도 이런 것이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인간들의 최초 황금 종족'이었다고도 말한다. 옛사람들의 그토록 복되다고 하는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9. 아스타르테와 크로노스의 통치, 신들의 상징

『복음의 준비』 1.10.31~41.

[에우세비오스] 저자는 다른 내용들을 말한 뒤 다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위대한 여신 아스타르테와 제우스 데마루스, 그리고 신들의 왕 아도도스는 크로노스의 동의를 얻어 그 나라를 다스렸다.

아스타르테는 왕권의 표지로 자기 머리 위에 황소의 머리를 얹었다. 그녀는 세상을 돌아다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발견

하였다. 그것을 주워 성스러운 섬 티레에 봉헌하였다. 페니키아인들은 아스타르테가 아프로디테라고 말한다.

크로노스 역시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기 딸 아테나에게 아티카의 왕권을 주었다.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자, 크로노스는 자신의 외아들을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온전히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올렸다. 그는 자기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였으며, 함께 있던 동맹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강요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아에게서 낳은 또 다른 아들 무트가 죽자, 그는 그 아들을 신으로 받들었다. 페니키아인들은 그를 타나토스와 플루톤이라고 부른다.

그 뒤 크로노스는 비블로스시를 디오네라고도 하는 여신 바알티스에게 주었다. 베리토스는 포세이돈과 카베이로이, 아그로타이와 할리에이스에게 주었다. 이들은 폰토스의 유해를 베리토스에 봉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타아우토스 신은 자기 동료 신들인 크로노스와 다곤, 그리고 다른 신들의 모습을 본떠 신성한 문자의 자형을 만들었다.

그는 크로노스를 위해 왕권의 표지도 고안하였다. 앞쪽과 뒤쪽에 눈 네 개를 두었는데, [둘은 깨어 있고] 둘은 조용히 감겨 있었다. 어깨에는 날개 네 개를 두었는데, 둘은 날아오르듯 펼쳐져 있고 둘은 접혀 있었다.

그 상징은 크로노스가 자면서도 볼 수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잘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날개 역시 마찬가지로, 쉬면서도 날고 날면서도 쉰다는 뜻이었다.

다른 신들에게는 저마다 어깨에 날개 두 개를 주었다. 그들이 크로노스와 함께 난다는 뜻이었다. 크로노스 자신의 머리에는 다시 날개 두 개를 주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성을, 다른 하나는 감각을 나타내었다.

크로노스는 남쪽 땅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전체를 타아우토스 신에게 주어, 그것을 그의 왕실 거처로 삼게 하였다.

이 일들을 처음 기록한 사람들은 쉬뒤크의 일곱 아들 카베이로이와 그들의 여덟째 형제 아스클레피오스였다고 한다. 타아우토스 신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페니키아인들 가운데 태초 이래 최초의 밀의 집전자였던 타비온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의로 풀이하여 자연과 우주의 현상들에 섞어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의를 거행하고 밀의를 주관하던 예언자들에게 전하였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자기들의 허황된 권위를 키우려 하면서, 그것을 자기 후계자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세 문자를 발명한 에이시리오스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포이닉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린 크나의 형제였다.

[에우세비오스] 그 뒤에 그는 다시 덧붙인다.

그러나 재능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그리스인들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 대부분을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방식으로 비극적 표현의 장식으로 꾸미고 온갖 수단으로 치장하여,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매혹시키려 하였다.

이리하여 헤시오도스와 이름난 서사시 계열의 시인들은 자기들 나름의 신들의 계보와 거인들의 전쟁, 티탄들의 전쟁, 거세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진실을 이기고 몰아내었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그들의 허구에 익숙해진 채 자랐고, 오랜 세월 그것에 사로잡혀 왔다. 그리하여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전해 받은 신화를 마치 맡겨진 보물처럼 지키고 있다.

그 신화는 세월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붙잡는 힘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때문에 진실은 허튼소리로 여겨지고, 가짜 이야기는 진실로 여겨진다.

[에우세비오스] 비블로스의 필론이 번역하고 철학자 포르피리오스가 진실하다고 증언한 산쿠니아톤의 저술에서 인용한 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10. 별도 인용: 타아우토스와 외아들의 희생

『복음의 준비』 1.10.42~44. 에우세비오스는 이 대목의 출전을 필론의 『유대인에 관하여』라고 밝힌다. 따라서 이를 『페니키아사』 본문의 연속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에우세비오스] 같은 저자는 『유대인에 관하여』에서 크로노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더 기록한다.

이집트인들이 토위트라 부르는 타아우토스는 페니키아인들 가운데 지혜가 뛰어났다. 그는 처음으로 신들을 숭배하는 일을 일반 사람들의 무지에서 끌어내어, 지식에 바탕을 둔 경험의 질서로 정리하였다.

여러 세대 뒤, 수르무벨로스 신과 — 뒤에 에우사르티스라고 이름이 바뀐 — 투로는 타아우토스를 따라, 감추어지고 우의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신학을 밝혀냈다.

[에우세비오스] 조금 뒤에 그는 말한다.

옛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닥쳤을 때, 도시나 민족의 통치자들이 공동의 파멸을 막으려고 자기 자녀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내놓아 희생시키는 관습이 있었다. 그것을 복수하는 영적 존재들에게 바치는 대속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넘겨진 아이들은 비밀 의식에 따라 희생되었다.

페니키아인들이 엘로스라 부르는 크로노스는 그 나라의 왕이었다. 그는 죽은 뒤 토성이라는 별로 신격화되었다.

그에게는 그 땅의 님프 아노브레트에게서 얻은 외아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를 이에두드라 불렀다. 페니키아인들은 지금도 외아들을 그렇게 부른다.

전쟁으로 나라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지자, 그는 아들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제단을 마련하여 그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번역 주: 투로의 새 이름과 외아들의 이름은 대본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위 표기는 기퍼드의 영문 대본을 따랐다. 다이몬은 이 대목에서 제물로 달래려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므로, 특정 종교의 '악마'로 일률적으로 옮기지 않았다.

11. 별도 인용: 뱀과 용의 신성

『복음의 준비』 1.10.45~53. 에우세비오스는 필론이 산쿠니아톤의 내용을 옮긴 문자 관련 글로 소개한다. 정확한 독립 저술의 범위는 불확실하므로 별도로 수록한다.

[에우세비오스] 같은 저자가 산쿠니아톤을 번역하면서 페니키아의 문자들에 관해 쓴 대목에서, 기어 다니는 동물들과 독을 가진 짐승들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도 보라. 그것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으며, 치료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는 상대에게 죽음과 파멸을 가져온다. 그는 이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글자 그대로 기록한다.

타아우토스 자신이 용과 뱀의 본성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으며, 그의 뒤를 이어 페니키아인들과 이집트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는 이 동물이 기어 다니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숨결로 충만하고 불 같은 존재라고 전하였다. 이 때문에 이 동물은 다른 동물들이 움직일 때 쓰는 발이나 손, 그 밖의 외부 기관이 없으면서도, 자기 숨결로 더할 나위 없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며, 이동할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나선형의 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다. 낡은 껍질을 벗어 젊어질 뿐 아니라, 몸이 더욱 크게 자라는 성질도 지니고 있다. 정해진 수명의 분량을 다 채우면 자기 자신 속으로 소모되어 들어간다. 이는 타아우토스 자신도 신성한 문서들에 기록한 바와 같다. 이 때문에 이 동물은 신전과 밀의에도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에토티아이』라는 제목의 기록들에서 이 동물에 관하여 더 자세히 말하였다. 거기에서 그것이 불멸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 속으로 소멸해 들어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 동물은 강한 타격을 받아 죽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사하

지 않기 때문이다.

페니키아인들은 그것을 '선한 다이몬'이라 부른다.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로 크네프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그들은 매의 활동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동물에 매의 머리를 붙인다.

또한 그들 가운데 최고의 밀의 집전자이자 신성한 기록관으로 불리는 에페이스도 우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저술은 헤라클레오폴리스의 아레이오스가 번역하였다.

"최초의, 가장 신적인 존재는 매의 형상을 지닌 뱀이다. 그것은 지극히 아름답다. 그것이 눈을 뜨면 자기가 처음 생겨난 곳의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찼고, 눈을 감으면 어둠이 찾아왔다."

여기에서 에페이스는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존재가 불 같은 실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빛을 비추는 것은 빛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이다.

페레퀴데스 역시 페니키아인들에게서 첫 착상을 얻어, 그가 오피온이라고 부르는 신과 오피오니데스에 관한 신학을 전개하였다. 이들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이집트인들도 같은 생각에서 세계를 묘사할 때, 하늘과 불의 빛깔을 지닌 둥근 원을 새기고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매의 형상을 한 뱀을 길게 그린다. 전체 모양은 우리가 쓰는 글자 세타, 곧 θ와 같다.

그들은 원으로 세계를 나타내고,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로 이어 주는 뱀으로 선한 다이몬을 나타낸다.

마고스 조로아스터 역시 『페르시아의 신성한 기록 모음』에서 글자 그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은 매의 머리를 지닌다. 그는 최초의 존재이며, 썩지 않고 영원하며, 생겨난 적이 없고 부분으로 나뉘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과 가장 닮지 않은 존재이다. 그는 모든 선한 것의 지배자이며, 뇌물을 받지 않고, 선한 자들 가운데 가장 선하며,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

또한 그는 좋은 법과 정의의 아버지이고, 스스로 깨우쳤으며, 본성적이고 완전하며 지혜롭고, 자연의 신성한 힘을 홀로 발견한 자이다."

오스타네스 역시 『여덟 권의 책』이라는 제목의 저술에서 그에 관하여 같은 말을 한다.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타아우토스에게서 출발점을 얻어 자연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신전들을 짓고, 뱀으로 나타낸 최초의 원소들을 신전의 내실에 봉헌하였다. 또한 그것들을 가장 위대한 신들이자 만물의 지배자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위한 축제와 희생 제의와 밀의를 거행하였다. 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번역 주: 이 절에서 '우리는'이나 '뒤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언제나 산쿠니아톤 자신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론의 해설과 그가 인용한 다른 저자들의 말이 함께 전한다. 에토티아이 등의 정확한 서명도 불확실하다.

12. 다른 출전에 남은 인신공양 관련 단편

포르피리오스, 『육식 절제에 관하여』 2.56. 에우세비오스 『복음의 준비』 4.16.6에도 인용된다. 이어지는 외아들 희생 이야기는 『복음의 준비』 4.16.11에 별도로 전한다.

12-1. 포르피리오스의 전언

페니키아인들 역시 전쟁이나 역병이나 가뭄으로 큰 재난을 겪을 때에는,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봉헌하여 크로노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곤 하였다.

그렇게 희생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는 『페니키아사』에 가득하다. 산쿠니아톤이 그것을 페니키아어로 지었고, 비블로스의 필론이 여덟 권으로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다.

12-2. 필론의 『페니키아사』 제1권에서 인용한 문장

[에우세비오스] 앞서 말한 저술에서 가져온 인용은 이 정도로 해 두겠다. 그러나 필론의 『페니키아사』 제1권에서는 다음을 인용하겠다.

옛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험과 재난이 닥쳤을 때, 도시나 민족의 통치자들이 모든 사람의 파멸을 막기 위해 자기 자녀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희생시킬 목적으로 내놓는 관습이 있었다. 그것을 복수하는 영적 존재들에게 바치는 대속물로 삼았으며, 이렇게 넘겨진 아이들은 비밀 의식에 따라 살해되었다.

페니키아인들이 엘이라 부르는 크로노스는 그 나라의 왕이었다. 그는 죽은 뒤 토성이라는 별로 신격화되었다. 그에게는 그 땅의 님프 아노브레트에게서 얻은 외아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그를 이에우드라 불렀다. 지금도 페니키아인들은 외아들을 그렇게 부른다.

전쟁으로 그 나라가 극심한 위험에 빠지자, 그는 아들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제단을 마련하여 그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번역 주: 제10절과 내용은 거의 같지만, 이 출전에서는 에우세비오스가 『페니키아사』 제1권이라고 명시한다. 두 출전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중복을 생략하지 않았다. 저술의 전체 분량도 한 증언에서는 아홉 권, 다른 증언에서는 여덟 권이라고 한다.

13. 『페니키아사』 제2권에 관한 짧은 전언

요안네스 뤼도스, 『월력에 관하여』 4.154. FGrHist 790 F5에 해당하는 인용 범위. 뒤쪽은 여러 저자의 전승이 섞여 있어, 모든 내용을 필론의 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페니키아인들은 같은 이름이 쓰인 탓인지, 또는 어떤 우의에 따라서인지, 크로노스에 관해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헤렌니오스 필론의 『페니키아사』 제2권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역사 전승은 그가 리비아와 시칠리아, 그리고 서쪽 지방들을 다스렸다고 전한다. 이는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카락스가 말하듯이, 그는 한 도시도 세웠다. 당시에는 크로니아라 불렸으나 지금은 히에라폴리스라 불리는 도시이다. 이시고노스의 『팔리코이 신들에 관하여』, 폴레몬, 그리고 아이스킬로스의 『아이트나』도 이를 전한다. 에우헤메로스의 역사 전체도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모습으로 꾸며 전한다. [이하 전승 단편의 인용 범위 끝]

번역 주: '리비아'는 여기에서 고대의 지리 명칭이다. 오늘날의 리비아 국경과 동일한 범위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절은 제2권 본문이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책을 언급하는 후대의 전언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14. 니시비스라는 지명에 관한 짧은 단편

비잔티온의 스테파노스, 『민족지명사전』 '니시비스' 항목. FGrHist 790 F6.

니시비스. 티그리스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도시이다.

필론은 『페니키아사』에서 알파를 써서 '나시비스'라 부른다. 그러나 우라니오스는 엡실론을 써서 '네시비스'라 한다.

필론이 말하기로는 '나시비스'는 '기둥들'을 뜻한다. 한편 우라니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시비스'는 페니키아어로 함께 놓인, 한데 모아 놓은 돌들을 뜻한다."

번역 주: 이 항목 전체 가운데 필론에게 귀속되는 내용과 다른 저자 우라니오스의 설명을 구분해야 한다. 산쿠니아톤이 직접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필론의 『페니키아사』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므로 포함했다.

15. 귀속이 불확실한 관련 단편: 이아오라는 이름

요안네스 뤼도스, 『월력에 관하여』 4.53. FGrHist 790 F7. ‘헤렌니오스’의 말을 전하지만 『페니키아사』라는 서명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쿠니아톤의 단편으로 확정하지 않고 부록으로 둔다. 아래의 […]는 고대 저자의 논의 전체가 아니라 단편집에 발췌된 부분 사이의 간격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이 공경하는 신에 관하여 신학자들 사이에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큰 의견 차이가 있다. […]

그러나 포르피리오스는 『신탁 주석』에서, 유대인들이 공경하는 신은 ‘두 번 초월한 자’, 곧 만물의 제작자라고 주장한다. 칼데아의 저자는 이 신을 ‘한 번 초월한 자’, 곧 선 그 자체 다음의 두 번째 존재로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반면 이암블리코스와 쉬리아노스, 프로클로스 계열의 사람들은 그를 감각 세계의 제작자라고 여기며, ‘네 글자의 신’이라고 부른다.

로마인 바로는 그에 관하여 논하면서, 칼데아인들의 비밀 의식에서는 그가 이아오라고 불린다고 말한다. 헤렌니오스가 말하듯이, 이는 페니키아어로 ‘지성으로 파악되는 빛’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곳에서 사바오트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일곱 천체 영역 위에 있는 자, 곧 제작자라는 뜻이다.

그에 관한 견해는 이처럼 많다. 그러나 그를 알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존재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더 낫다. 그를 디오니소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 그들 자신의 관습에서도 알 수 있다. […]

번역 주: 이아오의 어원 등은 인용된 고대 저자의 주장이다. 현대 언어학에서 확정된 어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절에서 필론에게 직접 돌리는 문구는 주로 ‘이아오’의 뜻에 관한 부분이며, 주변의 신플라톤주의 논의 전체가 필론 또는 산쿠니아톤의 글인 것은 아니다.

전승과 번역에 관한 주의

1. 이 문헌의 서술은 신들을 과거의 왕·문화 창시자로 설명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를 현대 역사학이 확인한 실존 인물의 연대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

2. ‘제우스’, ‘헤르메스’, ‘크로노스’ 등의 이름은 필론이 전달한 그리스어 본문에 이미 들어 있다. 번역자가 페니키아 신들을 임의로 그리스 신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3. 문명 발명의 중복, 신들의 계보상 모순, 여러 자녀를 둔 크로노스에게 ‘외아들’이 있었다는 표현 등은 전승 자체의 문제이다. 이 번역은 이를 하나의 매끄러운 이야기로 고쳐 쓰지 않았다.

4. ‘모트’와 ‘무트’ 등 유사한 이름, 산쿠니아톤의 연대와 자료 출처, 문자 관련 구절의 정확한 서명은 모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번역은 서로 다른 이름들을 임의로 하나로 합치지 않았다.

5. 에우세비오스가 신화나 이교 신앙을 비난하는 문장은 산쿠니아톤의 의견이 아니다. 본문에서 화자를 표시하였다. 1.10.54~56의 에우세비오스 자신의 마무리 논평은 『페니키아사』의 인용 내용이 아니므로 번역 대상에 넣지 않았다.

6. 그리스어 원문의 ‘모트’, ‘알의 형태’, ‘문자/원소’, 신명·인명 등에는 판독·번역상 논점이 있다. 이 자료는 현존 단편을 읽기 위한 한국어 번역이며, 그리스어 비평판과 주석서를 대신하는 교감판은 아니다.

대본과 확인 자료

- 에우세비오스, 『복음의 준비』 제1권, E. H. Gifford 영어 번역(1903), 공개 자료: https://www.roger-pearse.com/tertullian/fathers/eusebius_pe_01_book1.htm

- 에우세비오스, 『복음의 준비』 제4권, 같은 번역: https://www.roger-pearse.com/tertullian/fathers/eusebius_pe_04_book4.htm

- 필론의 단편 그리스어 인용 모음, FGrHist 790의 번호를 표시하는 공개 전사본: https://ancientlibrary.net/philo-of-byblos-fragments/

- 요안네스 뤼도스, 『월력에 관하여』 제4권 154절, Mischa Hooker의 공개 영문 번역: https://penelope.uchicago.edu/Thayer/E/Roman/Texts/Lydus/4/December%2A.html

- Ju. B. Tsirkin, “Some Considerations about the Second Book by Philo of Byblos,” Aula Orientalis 21 (2003), 79–86: https://www.ub.edu/ipoa/wp-content/uploads/2021/09/20031AuOrTsirkin.pdf

- Oxford Classical Dictionary, “Philon (5), of Byblos”: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61673/chapter-abstract/549706068

한국어 번역 작성: 2026년 11월 28일.